

# READER'S PAGE

독자에게 듣는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거주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자녀 고1, 중2  
 구독 기간 6년 6개월



##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038호

### WEEKLY THEME\_ 전공 맞춤형 강박 벗기 진로 역량 드러낼 과목 선택은?

“실상 고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대학 학문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와닿았어요. 학생들은 보통 진로와 직결되는 과목과 ‘진로 맞춤’ 활동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1046호

### WEEKLY THEME\_ 이수 과목 화려하면 평가에서 유리? 보통 교과 충실한 이수가 먼저

“전문 교과는 과목명부터 웬지 있어 보이잖아요. 전공 적 함성에 더 부합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전문 교과보다는 미적분, 경제 같은 보통 교과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줘 좋았어요. 지원자별 사례로 평가 차이를 확실히 해할 수 있었습니다.”

## 정시·고교 학점제 관련 기사 원해요

안녕하세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6~7년 전쯤 지역 내일신문에서 일하는 지인이 소개해주 알게 됐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교육계의 흐름과 대입 변화를 이해하기 좋아서 벌써 7년째 구독하고 있습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학원 비차용은 아니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입 관련 기사는 전부 다 보는 편입니다. 고교 선택이나 대입 제도 변화 등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학부모 설명회 때 활용하기도 하고 학생 진로·진학 설명이나 상담 시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학교에서 선택 과목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선택 과목에 관한 기사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일교육〉이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저희 학원이 교육특구에 있습니다. 정시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에 따라 당연히 수능 대비를 많이 합니다. 정시 관련 대입 정책과 변화, 입시 준비법 등을 더 많이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종합 전형 비중이 줄어 종합 전형만 준비하는 건 부담이 크기도 하고요.  
또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렇다 할 방향성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찌 흘러가고 있는지 맥이라도 잡아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진로선택 과목 수업을 제대로 하는 학교도 있지만 〈수능특강〉 풀이를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현실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준다면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정할 때 좀 더 제대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적인 수업 소개도 좋지만 좀 더 현실이 반영된 기사에 이에 따른 학생별 대처 방안 등을 알려주면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들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